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이용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강원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이향미·김미영\*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A Case Study on the Farm Revival Program Conducted by Farmland Bank in Gangwon Province

Yi, Hyangmi·Kim, Mi Young\*

*Dept. of Agricultural & Resource Econom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ural Research Institute*

**ABSTRACT** : The Farm Revival Program of the Farm Land Bank, implemented in 2006, initiated as the Agricultural Land Bank's business proposal to achieve efficient usage of farm land. Also, expansion of Farm Revival Program will bring positive effects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Farm Revival Program contributes to farm liability issues and management improvements.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Farm Revival Program, searching for improvement methods through a rural demand survey is very insufficient. The following research limits the target to farms that applied for the management redemption project within Gangwon Province and examined the application motivation, project satisfaction, and demands of the farms. This research holds value as a fundamental data which reflects the demands of farms to better manage Farm Land Purchasing of the Farm Land Bank.

**Key words** : Farmland Bank, Farm Household Debt, Farm Revival Program, Qualitative Research

## 1. 서 론

우리나라 호당 농가소득은 지난 2008년 3,052만 3,000원에서 2012년 3,103만 1,000원으로 연 평균 1.6% 증가에 그쳤다. 이에 반해 농가부채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2,578만 6,000원에서 2,726만 2,000원으로 5.7%늘어 소득 증가율을 3배 이상 앞질렀다. 이러한 현상은 농가소득의 3대 문제인 실질 농가소득 하락과 불안정성, 저소득 농가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박준기, 2013), 현재의 농업생산 여건 하에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1)</sup>

일반적으로 농가들은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에 의해서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특히 농지는 농가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농

지의 매각은 탈농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농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농지은행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련된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2005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후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도 변화하였고, 사업규모도 확대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은 사업목적에 따라 크게 영농규모화, 농지이용 효율화, 농가경영 안정화,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농가 경영안정화 목적에는 부채농가지원과 고령농지원 기능의 사업이 속하며,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이 포함

Corresponding author : Yi, Hyangmi

Tel : 033-250-8660

E-mail : 69000@hanmail.net

된다. 특히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지은행이 부채나 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농가의 농지 또는 농업시설물을 매입함으로써 해당 농가의 부채문제를 줄이고, 농가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성격(임세화·양승룡, 2012)을 띠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생산요소인 동시에 농가자산인 농지를 담보 자산으로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그 생산수단인 농지를 계속 활용케 하여 농가의 소득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235억 원을 투입해서 경영위기에 처한 5,908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며(농가 평균 2.4억원), 이를 통해 담보농지의 경매처분을 방지함으로써 총 4,698억 원에 해당하는 농지 자산가치가 보존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또한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 대신 저렴한 농지임대료 부과로 연간 1,709억 원(농가 평균 2,900만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되었다<sup>3)</sup>(한국농어촌공사, 2014). 따라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지의 자산 가치를 이용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농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농지은행 사업 관련 연구들은 농지은행사업 제도(김홍상 외, 2011; 김태근, 2007; 김홍상, 2005; 신희준, 2005; 윤석환, 2005; 김홍상, 2004; 김호상·김경덕, 2004; 박석두, 2004; 신희준, 2004; 이형순, 2004; 김병철, 2003), 해외선진국의 농지은행 사례(김수석 외, 2010; 윤석환, 2004; 윤석환, 2003), 농지상속(채광석·박석두, 2012) 등이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농지은행 사업별로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에 관한 연구에는 임세화·양승룡(2012)이 있다. 이 연구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에 무상으로 지급되는 환매권을 콜옵션으로 해석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옵션가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의 정책 운영방식을 유지할 경우 연 평균 최소 889억 원에서 최대 3,546억 원에 달하는 정책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이러한 정책비용 증가는 정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에 관한 연구들은 대응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통계자료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농가들이 왜 해당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해당 사업이 참여농가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해당 사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 농가들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영회생지원사업에 관한 참여 의사결정자인 재배농가의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질적 접근(qualitative research)은 탐색적이며, 연구자가 검토해야 할 중요한 변인을 알지 못할 때 유용한 연구 방법이기 때문이다(조성남 외, 2011).

이러한 맥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경영회생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살펴본 후, 사업 참여 농가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경영회생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연구주체와 관련된 개별 문제 상황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심층적인 담론해석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영회생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어 II 장에서는 경영회생지원사업 개요 및 운영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III 장에서는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농가 조사를 통해 신청동기, 사업만족도 분석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IV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II. 경영회생지원사업의 개요 및 운영 실태<sup>4)</sup>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06년부터 농가경영안정화 목적하에서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로 시행되었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 농업인이다. 단, 영농승계자가 없는 76세 이상 농업인, 상가·2주택 소유자, 농외소득이 50% 이상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되,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간 농업소득)×7년/부채]×100으로 계산되는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7년이라는 기준은 7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임대기간인 7년을 고려한 것이다. 즉, 이 조건은 7년간의 총소득이 누적 부채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60,000원/m<sup>2</sup> 초과 농지매입 제외)이며,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7년 임대해 주고(평가

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농가는 임대기간 중 환매신청이 가능하다. 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 3%×환매년수)’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2013년까지는 환매권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며 임대기간 중에 환매를 요청할 시, 환매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환매대금의 40/100 이상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잔액은 3년 이내에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하지만 2014년부터는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농지은행사업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해당농가가 경영상황이 호전되면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환매되지 않은 농지는 농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매도되며, 매도하기 전 한시적 임대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농지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해 자경한 지 8년 이상인 농가로서 통작 거리가 20km 소재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내에서 과세 기간별 2억 원까지 감면되고, 매매 계약일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4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해 농지를 매도한 후 임차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농지가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하지 않고는 매각이 어렵고, 경매의 경우에도 저가 낙찰로 농가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농지경매 낙찰률(낙찰가/평가가)은 67%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농지은행 매각 후에는 이자보다 싼 임차료(매각대금의 1% 수준)를 낸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따라서 농지은행이 시가로 매입하면 그만큼 농가는 더 많은 부채를 상환하게 되어 이득이 되며, 해당 농업인의 농업 이탈 방지와 농지 분할 방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Table 1), 지난 8년(2006~2013년)간 5,908명에게 지원하였다. 농지면적은 총 7,750ha(농가 평균 1.4ha)를 매입하였고, 농가평균 2.4억 원(총 지원금액 14,235억 원)을 지원하였다. 지



※ Source: <http://ebook.mifaff.go.kr>

Figure 1. Propulsion System of Farm Revival Program

Table 1. Operation Performance

	Farmer			Area(ha)				Amount of Money (hundred of million)		
	Total	Farm Debt	Farm Disaster	Total	Average	Farm Debt	Farm Disaster	Total	Farm Debt	Farm Disaster
2006	183	163	20	311	1.7	286	25	422	387	35
2007	444	411	33	629	1.4	582	47	953	874	79
2008	490	451	39	696	1.4	631	65	1,195	1,114	81
2009	635	613	22	878	1.4	849	29	1,700	1,654	46
2010	1,148	1,141	7	1,369	1.2	1,359	10	2,400	2,390	10
2011	978	971	7	1,313	1.3	1,304	9	2,400	2,381	19
2012	1,009	1,009	-	1,302	1.3	1,302	-	2,600	2,600	-
2013	1,021	1,021	-	1,252	1.2	1,252	-	2,565	2,565	-
합계	5,908	5,780	128	7,750	1.4	7,565	185	14,235	13,965	270

※ Sourc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2014)

원대상자는 부채농가가 97%인 4,759명(6,313ha, 1조 1,400억 원)이며, 재해농가가 3%인 128명(185ha, 270억 원)이다.

Table 2를 통해 농지 환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8년간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5,908농가 중 5.7%인 337농가(399.4ha)만이 농지를 환매하였다. 환매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 27.32%(50농가)에서 2007년 20.05%(89농가), 2008년 13.88%(68농가), 2009년 8.03%(51농가), 2010년 3.22%(37농가), 2011년 2.76%(27농가), 2012년 1.39%(14농가), 2013년 0.10%(1농가)로 나타났다. 아직 첫 번째 환매 완료 시기(2016년)가 도래하지 않아 정확한 환매율은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는 해당 사업 완료시기 도래 이전에 환매하는 비율이 사업 초기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매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농가소득이 2006년 32,303천원을 최고로 200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농가자산(토지자산의 평균 기준 가격)도 2007년까지는 매년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했기 때문에 2008년부터는 농가소득만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매입된 농지를 다시 환매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완료 도래 전 환매율 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지원농가는 경북이 20.9%인 1,234명, 전남이 18.3%인 1,079명, 전북이 13.9%인 821명 등이다. 지원면적은 전남이 25.2%인 1,952.4ha, 전북이 17.1%인 1,326.2ha, 경북이 15.6%인 1,210.1ha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금액은 충남이 16.4%인 2,336억 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경북 14.8%(2,113억 원), 전남 14.6%(2,083억 원) 등이다.

한편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운영 실적은 낮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2012년 기준 농가부채비율(=부채/자산)은 각각 6.8%, 7.3%, 6.9%이다. 이것은 전국 농가부채비율 6.7%를 상회한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역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운영 실적이 낮은 이유는 각 지역의 농업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즉, 경기와 충북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농지의 시세가 비싸 경영회생지원사업보다는 농지 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강원지역은 절대적인 수치 값에서 경영회생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수 및 농지 면적은 적지만, 각 지역별 경지면적을 고려했을 때 경영회생사업 참여 농지면적 비율은 0.55%(2012년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한 농가부채비율도 경남(8.0%)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지역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해당 사업 참여 동기 및 만족도 분석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 III.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농가 사례조사

#### 1. 연구설계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이해하고자 한다(조성남 외, 2011). 특히 연구 주제에 관한 지식의 축적이 미흡할 때 전반적인 이해와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그 경험을 조사하는 질적연구가 적합하다. 따라서 질적분석은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이러한 경험 구조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본 연구는 소수의 사례로부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여 사례의 다양한 성격에 초점을 맞춘 사례조사(case study)이다.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는 대단위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

Table 2 Repurchase Operating Performance

	Farmer(A)	Repurchase		Repurchase Rate(B/A)
		Farmer(B)	Area(ha)	
2006	183	50	63.5	27.32%
2007	444	89	101.5	20.05%
2008	490	68	79.0	13.88%
2009	635	51	69.4	8.03%
2010	1,148	37	37.1	3.22%
2011	978	27	33.5	2.76%
2012	1,009	14	14.1	1.39%
2013	1,021	1	1.3	0.10%
합계	5,908	337	399.4	5.70%

※ Sourc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2014)

구인 반면, 질적 연구는 대규모의 사례 대신에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소수의 특정한 사례들에 연구관심을 둔다. 이때 사례는 극단적으로 1명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 경우에는 사례수가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질적 연구의 목적은 무선 표집을 통한 사례가 아니라 목적 표집을 통한 연구자가 특별한 연구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례들에 한정된다(김영천,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부채가 3,000만 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농지은행사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신청농가들의 영농실패 및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해당 사업 참여농가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영농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참여 동기 및 만족도 여부 등을 밝히는 등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는 참여농가를 선정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재까지(2013년 10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 and Guba(1985)가 제안한 방법 중에서 연구자의 통합과 자료의 통합을 따랐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하여 현상을 이해하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해석의 신빙성이 높아지므로(Creswell, 2011)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서와 면담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였다.

## 2. 연구 결과<sup>5)</sup>

###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Table 3은 본 연구 참여농가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홍천이 9농가로 전체의 40.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양구 6농가(27.3%), 횡성 4농가(18.2%), 춘천 2농가(9.1%), 정선 1농가(4.5%)이다.

학력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4.5%(12명)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고, 이 가운데 대학교 졸업 이상인 농가는 2명(9.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조사 대상 농가의 연령분포는 30대 4.5%(1명), 40대 9.1%(2명), 50대 50.0%(11명), 60대 36.4%(8명)이다. 평균 연령은 56.7세이다.

영농경력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95.5%(21명)는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		
Variable	Frequency	Average	Variable	Frequency	Average
Region	Hongcheon	9(40.9%)	Education	Uneducated	1(4.5%)
	Yanggu	6(27.3%)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9(40.9%)
	Hoengseong	4(18.2%)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2(9.1%)
	Chuncheon	2(9.1%)		High School graduation	8(36.4%)
	Jeongseon	1(4.5%)		University graduate	2(9.1%)
	Total	22(100%)		Total	22(100%)
Crops	Upland crop	9(40.9%)	Ages	the thirties	1(4.5%)
	Rice plant + Upland crop	7(31.8%)		the forties	2(9.1%)
	Rice plant	4(18.2%)		the fifties	11(50.0%)
	Flower	2(9.1%)		the sixties	8(36.4%)
	Total	22(100%)		Total	22(100%)
Farming Career	5 years ~ 10 years	1(4.5%)	Cultivation Area	Less than 1ha	2(9.1%)
	11 years ~ 20 years	4(18.2%)		1ha ~ 2ha	11(50.0%)
	More than 20 years	18(81.8%)		More than 2ha	9(40.9%)
	Total	22(100%)		Total	22(100%)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약 1%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조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7.3%(17명)는 영농경력이 20년 이상이다. 평균 영농경력은 32.3년이다.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의 경우 영농경력이 5년 미만인 신규취농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요 재배작목은 밭작물 40.9%(9명), 복합영농 31.8%(7명), 수도작 18.2%(4명), 화훼 9.1%(2명)이다.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1.0ha 미만 9.1%(2명), 1.0~2.0ha 50.0%(11명), 2.0ha 이상 40.9%(9명)이다. 평균 재배면적은 3.2ha이다.

이러한 경영회생지원사업에 참여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50대에서,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서, 재배면적 2ha 이상인 농가에서, 영농경력 20년 이상인 그룹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농가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경로를 살펴보면(Table 4 참고), 주변의 이웃을 통해 해당 정보를 획득했다는 농가와 TV나 신문을 통해 해당 사업을 알게 되었다는 농가가 각각 31.8%(7명)이다.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을 통해서 알게 된 농가는 27.3%(6명)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 후 지원받기까지는 평균 2.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신청 동기 및 만족도 분석

일반적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지원효과는 농지 환매가능, 자산손실방지, 다른 금융권 대비 저렴한 이자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원효과가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해 본 연구에 참여한 농가들의 주요 신청동기, 만족/불만족하는 이유, 요구사항 등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청 동기

본 연구에 참여한 농가들의 과도한 부채 누적은 기존 대출기관을 통해 대출금을 교육비 등으로 사용했거나(농가B.1), 농산물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농가B.7). 이러한 과도한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주요 동기는 부채로 인한 자금압박,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의 대출상환 부담, 농지환매 가능 등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영 압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6명(농가B.2, 농가B.7, 농가B.13, 농가B.14, 농가B.18, 농가B.20)이다. 이러한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가 많고, 농가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황의식·문한필, 2005). 따라서 부채관리는 소득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 참여농가의 약 27.3%는 이러한 부채관리를 위해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이 부족해서. 부채가 있어서 자금 압박이 들어와서.(농가B.18)”

둘째, 일반적으로 농가부채는 가계성 부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입액이 모두 농산물 생산에 관한 투자로 귀결되지 않고 생활자금으로 전용되기도 한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가계성 부채 중에서 교육비 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60세 이상에서는 관혼상제비 비율이 높다(조덕래·최외운, 2000).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에 있어 고금리는 농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동기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1명이다(농가B.1).

“농협에서 융자받아서 교육비로 사용했는데 농협의 이자가 고금리이다. (이미 많이 빌려서)농협의 대출금 갚으려고(농가B.1).”

“처음에 농사 시작하면서 시설투자하고 투자 대비 농산물 값이 없어서 부채가 계속 쌓였다(농가B.7).”

셋째, 농지는 농업생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농가의 자산 중에서 가장 큰 저장가치를 가지고 있다(송시강, 2007). 이러한 농지를 법원의 파산절차에 따

Table 4 How to obtain information and Lead-time

How to obtain information	Frequency	Lead-time	Frequency
Alone	1(4.5%)	Within 1 month	7(31.8%)
Staff	6(27.4%)		
Official	-	Within 2 months	3(13.7%)
TV(Newspaper)	7(31.8%)		
Internet	-	Within 3 months	12(54.5%)
Neighborhood	7(31.8%)		
Etc.	1(4.5%)		

Table 5 Satisfaction and Non-Satisfaction of Participating Farmers

		Satisfaction	Non-Satisfaction	
Cultivation Area	Less than 1ha	2	-	$\chi^2=1.324$ p=0.516
	1ha ~ 2ha	7	4	
	More than 2ha	7	2	
	Total	16	6	
Ages	the thirties	1	-	$\chi^2=0.076$ p=0.0963
	the forties	1	1	
	the fifties	8	3	
	the sixties	6	2	
	Total	16	6	
Farming Career	5 years ~ 10 years	-	1	$\chi^2=10.236$ p=0.420
	11 years ~ 20 years	3	1	
	More than 20 years	13	4	
	Total	16	6	
Education	Uneducated	1	-	$\chi^2=5.615$ p=0.346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5	4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2	0	
	High School graduation	7	1	
	University graduate	1	1	
Total	16	6		
Crops	Upland crop	7	2	$\chi^2=0.653$ p=0.884
	Rice plant + Upland crop	3	1	
	Rice plant	5	2	
	Flower	1	1	
	Total	16	6	
Information	Alone	1	-	$\chi^2=1.953$ p=0.744
	Staff	5	1	
	Official	-	-	
	TV(Newspaper)	5	2	
	Internet	-	-	
	Neighborhood	4	3	
	Etc.	1	-	
Total	16	6		

라 처분하게 되면 농업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 인 영농을 하기 위해서 농지 확보는 선결되어야 하고, 이렇게 농지를 다시 원래의 소유주가 다시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2명이다 (농가B.11, 농가B.17).

“부채가 많아서 그 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팔고 입차하면 다시 살 수 있다고 해서.(농가B.11)”

(2) 만족도 분석

전체 응답자의 72.7%(16명)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27.3%인 6농가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

응답자별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에 따른 해당 사업의 만족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자승 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4와 같이 본 연

구에서 살펴본 응답자들의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농가들의 개별 특성과 경영회생지원사업의 만족여부는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났다<sup>6)</sup>.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농규모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ha 미만 2농가와 1ha 이상 농가들 가운데 70%인 14농가는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 참여자의 연령별로 구분해 해당 사업의 만족여부를 살펴보면, 50대 이상 19농가 중에서 73.7%인 14농가가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40대 이하 해당 사업 참가자 중에서는 2농가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경력별로 해당 사업의 만족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영농경력이 10년 미만인 1농가는 해당 사업에 대해 불만

족하고 있으며, 11년 이상인 4농가 가운데 3농가, 20년 이상 17농가 가운데 13농가가 각각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작물별로 해당 사업의 만족 여부를 살펴보면, 밭작물 9농가 가운데 7농가, 벼 재배 4농가 가운데 3농가, 복합 영농 7농가 가운데 5농가, 화훼 재배 2농가 가운데 1농가가 각각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구분해서 해당 사업의 만족여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9농가 가운데 5농가, 중학교 졸업 2농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8농가 가운데 7농가, 대학교 이상 2농가 가운데 1농가가 각각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정보 획득 방법별로 해당 사업의 만족여부를 구분해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 6농가 중에서 5농가가 해당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V와 신문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획득한 7농가 가운데 5농가가, 주변사람을 통해 해당 사업의 정보를 획득한 7농가 가운데 4농가는 각각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회생지원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72.7%(16명)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만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농가 부채가 정리되어서 빚에 대한 생각을 덜하게 돼서 무게감이 덜어졌기 때문이다(농가B.3, 농가B.4, 농가B.9, 농가B.12, 농가B.14, 농가B.22). 또한 다른 금융권, 예를 들어 농협의 대출금리가 10%인 데 반해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이자(상환금리)는 3%로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농가B.6, 농가B.8, 농가B.10, 농가B.13).<sup>7)</sup> 그리고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시 농지를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농가B.21).

“해마다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서 도움이 되니까. 빚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덜하게 되(어)서 무게감이 덜하다(농가B.3).”

“농협의 이자가 10%인데 반해 이자가 싸서 도움이 됐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시준가로 매도하고 3% 이자를 낸다(농가B.6).”

“당장 형편이 안되니 당장 돈 때문에 나중에 형편되면 살 수 있으니까(농가B.21).”

한편 전체 응답자의 27.3%인 6농가는 경영회생지원사

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 불만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7년이라는 상환기간 동안 농업소득 향상이 어렵기 때문에 농지를 다시 환매하기에는 상환기간이 짧고(농가B.1), 환매할 때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며(농가B.7), 과도한 양도세는 농가들에게 이중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농가B.19). 그리고 해당 사업의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불만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부족하여 부채 상환 후 영농을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농가B.20).

“일부 도움이 되는데 어차피 임대료 부분이랑 나중에 환매할 때 부담이 된다. 목돈이 한꺼번에 필요하니까(농가B.7).”

“도움은 많이 되니까 처음에 양도세를 발생했다. 내가 처음부터 양도세가 있다는 것을 알면 신청을 안했다. 오히려 양도세를 4,000만 원 냈다.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게 됐다(농가B.19).”

“은행 빚만큼 땅을 가져간다. 초창기에는 그냥 사가져 갔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빚만큼만 땅을 갈라간다. 나에게 남은 여유돈이 없어서 농사지으려고 다시 대출받았다(농가B.20).”

#### IV. 경영회생지원사업 개선방안:

##### 연구 참여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가가 일시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량으로 파산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농업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일시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김두년, 2010). 이를 위해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지의 자산 가치를 이용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추구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도 참여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 농가들이 농지 환매를 통해 다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제도 개선과 타 농지은행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 참여 농가들 가운데 31.8%인 7농가(농가B.1, 농가B.2, 농가B.5, 농가B.8, 농가B.10, 농가B.13, 농가B.20)가 해당 사업의 기간 연장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환매대금 수납에 있어서 일 시납부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년에 얼마씩 분할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할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농가B.3, 농가B.6, 농가B.7). 그리고 현재와 같은 환매방식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농지 환매의 불가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가B.11).

하지만 사례조사에서와 같이 농가들의 환매기간 연장과 저리 자금의 지원은 오히려 환매율 제고를 위해서는 상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들의 환매기간 연장 요구와 아직까지 낮은 환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경영능력이 개선되었을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환매기간의 연장기간은 농가들의 영농일지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영농규모화사업(농지임대차선급금)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환매하지 못하는 농지를 바로 매각하는 것은 농가들의 탈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지임대차선급금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5~10년을 해당 농지 매각의 유예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농지 환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매자금이 부족할 경우 환매자금을 융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연리 2%, 연령에 따라 15~20년 원금균분상환)의 융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환매기간 연장 및 환매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 해당 사업 신청농가들은 정부(농협)와의 계약재배 의무면적 및 물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가격 변동폭 완화로 해당 농가들은 일정한 농업 소득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영회생지원사업에 신청한 농지를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자신감 결여는 영농의지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농가B.4와 농가B.14는 이러한 자신감 결여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것은)땅을 팔아먹는 거랑 같은 것이다(농가B.4)”라는 인식은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대표적인 부정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를 다시 환매하는 것이 중요한데,

Table 2에서와 같이 아직까지 환매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환매율을 고려할 때 농지의 환매 조건과 함께 농가소득 향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정부의 농업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농가 스스로 환매가능성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은 의무적인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는데,<sup>8)</sup> 교육기간이 바쁜 영농철에 집중되어 있다(농가B.21). 따라서 농가들의 영농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해당 교육을 작물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해당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은 영농경력이 20년 이상인 농가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왜 이러한 부채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여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의 조속한 경영회생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업 농가 대상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서 마케팅·판매, 경영 컨설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sup>9)</sup>

넷째,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서비스 및 관리개선이 필요하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담당직원의 설명이 없어서(농가B.19), 해당 사업 참여 농가들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해당 사업 신청 후 농가들은 3개월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신청에 대한 서비스 부족으로 농가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세부 규정을 몰라 정확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신청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 실시간 문자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TV나 신문, 주변의 이웃,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을 통해 주로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 및 상담문의를 위한 대표전화와 있으나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조차도 이를 알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았다.

따라서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자들까지 해당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신문·TV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및 동영상 등으로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앱 개발 및 농지정보를 함께 열람할 수 있는 GPS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V. 요약 및 결론

2006년에 도입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의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기여와 경영개선 효과를 고려할 때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확대는 농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임세화양승룡, 2012). 또한 본격적인 환매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경영회생사업의 환매가능성과 농지매도 가격설정(평가)방식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중요성에도 참여농가들의 관점, 의견, 태도, 경험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 농가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하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 사업을 신청하게 된 원인과 배경, 그리고 주어진 정책 현안(경영회생지원사업 정책)에 대한 신청 농가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질적 접근을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지면적 대비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원도를 지역표집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들을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영회생사업의 만족 여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계없이 사업자체의 보완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지은행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6년에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은 본격적으로 환매기간이 도래한다. 이들이 다시 농지를 환매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실제로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 후 환매한 농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을 고려하고 있거나 또는 신청 중인 농가들에게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농지은행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경영회생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서, 우선 환매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의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7년 임대해 주며,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데, 경영회생 어려움을 감안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농가는 임대기간 중 환매신청이 가능한데, 조기 환매할수록 환매 시 적용되는 이자율(현행 3%)을 인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이자 농가의 자산이다. 이러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시작한 농지은행사업이, 농가의 위험관리를 통한 농가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이 실제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위험에 처한 농가에게 재정적 지원과 함께 그들의 농지를 환매할 수 있는 경영능력 향상을 목표로 환매시기까지의 경영교육, 특히 자금운영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일시적·제한적 충격 완화 정도의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박준기, 2013)’는 인식이 ‘(부채가 많은)우리 같은 사람에게 힘이 되도록(농가B.2)’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담당 기관, 농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참여한 강원도 농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영회생사업 참여 농가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하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어질 수 있는 설명의 토대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주1) 이와 같은 농가부채의 증가는 정안성·오재균(2000)의 지적처럼 개별농가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높여 농가수지를 악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주2) 담보농지 경매처분의 사전예방으로 인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지원효과는 지금까지 지원된 총 금액(14,235억 원)에서 농지경매낙찰가율 67%를 적용한 9,537억 원을 빼면 4,698억 원이다(한국농어촌공사, 2014).
- 주3)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이자비용 절감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해당 사업 지원 전 1,851억 원(지원농가 부채금액 14,235억 원×연체이자율 13%)에서 지원 후 농지매입가격 1% 이내의 연간임대료 142억 원을 빼면 연간 1,709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농어촌공사, 2014).
- 주4)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2014)의 ‘2013년도 농지은행사업 분석자료’를 참조하였다.
- 주5) 본 연구에서는 참여 농가들의 응답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비록 문법에 어긋나고, 문장 자체가 제대로 완결되지 않았지만 농가들의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감정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제시하기 위해 오문임에도 그대로 인용

하였음을 밝혀둔다.

- 주6)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농가는 22농가로 소표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 농가들의 표집을 늘려 양적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후회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주7)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상환금리는 환매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정책 금리로 연 3%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임대료는 필지별 매도가격의 1% 이내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 주8) 주요 경영능력향상 프로그램에는 농업경영능력향상교육과 농업관측월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장부 제작 및 배부와 작성을 지도하고 있다.
- 주9) 교육희망 분야로는 마케팅·판매 34.2%, 경영컨설팅 28.3%, 우수경영사례 2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2013).

본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사업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의 결과물 중 일부이고,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Reference

1. Chae and S. Park, 2012, A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Farmland Inheritance and Policy Task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 Creswell J. 2008. Research design. Sage; Translation by Kim, Y, S. Ru, P. Park, Y. Seong, J. Seong, S. Yoo, N. Yim, C. Yim, J. Jeong and J. Heo, 2011, Design of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of Research. Sigma Press.
3. Farmland Bank of KRC, 2013, Analysis Data of Farmland Bank Projects in 2012.
4. Farmland Bank of KRC, 2013, Farmland Bank, Emerging as a Successful Agricultural Safety Net.
5. <http://ebook.mifaff.go.kr>
6. <http://www.fbo.or.kr>
7. Hwang, U. and H. Moon, 2005, Analysis of Variations of Income by Types of Farm Household. Rural Economy, 28(4), 1-17.
8. Jo, D and Y. Choi, 2000,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Debt Structure and Repayment Capacity in Western Gyeongnam Province by types of Farm Household Debt Structure, and Repayment Capacity of Farmers by Type Research. Agricultural Economic Research. 41(3), 153-170.
9. Jo, S, H. Lee. Y. Ju and N. Kim, 2011,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 Green Press.
10. Kim, B, 2003, Functions of Farmland Bank, Review of the Need of Introducing Farmland Trust System. Agricultural Economy Trends, 1, 18-25.
11. Kim, D, 2010, A study on the Law of Credit Rehabilitation Support for a Farmer and Fisherman: Focused Bankruptcy Code, Chapter 12 in America. Law Research 38: 349-372.
12. Kim, H and K. Kim, 2004,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armland Bank Syste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3. Kim, H, 2004, Major Consideration Issues Relating to Adopting Land Bank System. Rural Economy, 27(1), 19-40.
14. Kim, H, 2005, Policy Tasks and Major Issues According to the Adoption of Farmland Bank System. 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89, 26-36.
15. Kim, H, S. Kim, U. Hwang and C. Chae, 2011, Countermeasures of Farmland Bank Against the Changing Circumstance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6. Kim, S., Shi. Park, K. Chae, and K. Kim( 2010) Land Management and Agricultural Land System in Other Countrie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7. Kim, T, 2007, Policy Agenda For the Advancement of Agricultural Land Syste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8. Kim, Y, 2011,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 Bricoleur. Academic Press.
19.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14, 2013 Analysis of Farmland Bank Business Results
20. Lee, H, 2004, Directions of Agricultural System Development by the Changing Agricultural Circumstances. 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83, 71-79.
21.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22. MAFRA. 2013.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Government Legislation Agency.
23. Park, J, 2013, Policy Direction for the Stability of Farm Household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4. Park, S, 2004, The Basic Direction of Farmland System, New Directions of Public Interest of Land

- and Farmland Syste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Research Council of New Land.
25. Shin, H, 2004, Measures of Introducing a Farmland Bank System by the Reorganization of Farmland System. 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83, 47-56.
26. Shin, H, 2005, Revision of Farmland Laws and Directions of Promoting Farmland Bank Projects. 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89, 37-45.
27. Song, S, 2007, Measures of Agricultural Market Capitalization: Development of Agriculture as Industry and Relationship with Financial Markets. The Law Research Institute of Hongik Univ. 8(2), 317-341.
28. Yeong, Y and J. Oh, 2000, A Study on the Debt Repayment Capacity in Farm Households, Rural Community, 10, 126-165.
29. Yim, S and S. Yang, 2012, Estimation of Option Values of the Management Regenerative Strategy by Farmland Bank. Economy of Rural Community. 35(1), 91-100.
30. Yun, S, 2003, Measures of Introducing a Farmland Preemptive Consultative System. Agricultural Economy Trends, 5, 19-32.
31. Yun, S, 2004, Details of Japan's Farmland Management Project Group Initiative and Its Implication for the Adoption of Farmland Bank System in Korea. 6, 18-38.
32. Yun, S, 2005, Introduction of Farmland Bank Project and Direction of Agricultural Upsizing Business. 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89, 67-81.
- 
- 접 수 일: (2014년 7월 19일)  
수 정 일: (1차: 2014년 8월 23일, 2차: 9월 19일  
3차: 9월 27일)  
계재확정일: (2014년 9월 27일)  
■ 3인 익명 심사필